



청소년배분위원회 1기

※ 결과공유회 이후에 추가편집하여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결과공유회

어서와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처음이지?

- 일 시 : 2018년 8월 25일(토) 14시-16시
- 장 소 : 공공그라운드 001스튜디오
- 청소년배분위원
: 김수미, 김의석, 김채림, 김채영, 박수연, 박진주, 서준원, 서현희, 오예나, 이미현
정은미, 정한결 & 성인멘토 길영인, 김인숙
- 함께 하는 팀/단체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QUV, 파란, 파트, IDEA, R.K.C
- 진행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접수	
14:00-14:10	오프닝 : 보물찾기	
14:10-14:20	축하인사 from Michigan	
14:20-14:35	청소년배분위원회활동 소개 (1) - 청소년을 위한 활동팀	김채림, 박수연
14:35-14:50	청소년배분위원회활동소개(2) - 청소년이 하는 활동팀	김채영 서준원
14:50-15:00	어서와!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처음이지?(영상)	김의석
15:00-15:40	청소년배분위원회 지원단체 활동 소개 - 청소년을 위한 활동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 QUV - 청소년이 하는 활동 : 파란 / 파트 / IDEA	*발표순서 : 제비뽑기
15:40-16:00	감사인사 나누기	
16:00-	단체 사진촬영 및 마무리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시작

2016년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에서 20여년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영리단체를 심사하고 배분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청소년배분위원회(Youth Advisory Committee)에 대해 알게 되었다. YAC을 20여년 동안 운영을 하며 청소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결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유예된 시민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YAC의 취지와 가치에 공감하며 국내에서도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운영해보기로 했으며, 준비 끝에 2017년 7월 청소년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청소년배분위원회 1기를 모집하였다.



청소년배분위원회원회를 준비하며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은 "청소년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청소년들의 권한이었으나, 어른들이 임의로 가져간 것들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준비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청소년들을 동료시민으로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란 질문으로 바꾸어 준비하고 진행 해 나갔다.

청소년배분위원회 선발과정: “청소년에게 선택권주기”

청소년배분위원회는 구성하는 과정부터 성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뷰는 평가의 시간이 아닌 온라인 공지만으로 전달하기에 부족했던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자, 함께 하는 성인멘토와 청소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여부를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긴장감이 흐르는 딱딱한 환경이 아닌, 편안하고 환대하는 인터뷰 환경을 만들고, 개개인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구성하였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과정: “프로그램화 하지 않기”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 가르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모든 과정을 프로그램화 하지 않았다. '1천만원을 배분한다'라는 것만 정해놓았을 뿐, 이를 위해 무엇을 보고, 배우고, 경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청소년배분위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 역시 배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과정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장을 만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가를 만나고, 만남과 경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과정 : “가상이 아닌 실제 참여”

청소년배분위원회는 가상의 기금을 배분하고, 모의 심사하는 것이 아닌 실제 1천만원이라는 기금을 배분하여 청소년들이 결정한 것을 실현시켰다.

지원분야, 심사기준부터 서류작성, 서류/면접심사 등 모든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여 만들어갔다. 청소년배분위원회 1기의 경우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가장 공감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편견과 한계(지원, 인프라 부족 등)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활동-청소년인권전반'과 '청소년이 하는 활동 - 청소년사회참여' 분야에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 6개의 단체/팀 프로젝트에 배분을 했다.



<청소년배분위원회 지원을 받아 함께 한 단체/팀>

● 청소년을 위한 활동(청소년인권)



단체명	사업명
대학성소수자 모임연대 QUV	색다른 색으로, 마주하고 만나보기 - 청소년, 비청소년 성소수자 삶 이어보기(퀴어로운생활)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	“특성화고 I CAN SPEAK!” - 특성화고 청소년 권리인식 활동

● 청소년이 하는 활동(청소년사회참여)



팀명	사업명
파트	우리가 만드는 세상 : 청소년 정책제안 사업
파란	청소년, 언성(性)을 높이다 : 성평등인식개선 프로젝트
IDIA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버스 :저상버스 알리기 캠페인
R.K.C	F.L.Y (Forth! Labor human rights for Youth)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배분위원회의 가치 : 함께 하는 어른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청소년들의 권한이었으나 어른들이 임의로 가져간 것들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어른, 성인멘토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다.

심사할 서류 정리, 면접심사 시 기록 등 청소년배분위원들이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시간과 정보의 제약을 보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결정을 할 때 함께 논의를 하는 파트너이자, 결정한 것을 믿고 응원해주는 지지자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청소년배분위원회 1기는 청소년도 성인멘토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배분위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길영인, 김인숙 성인멘토가 함께 해 주었다.



청소년배분위원들의 스토리



“세상이 알았겠어요?
청소년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도해서 배분사업을 하게 될지 몰랐다

단체 선정을 마친 청소년 배분위원들이 모였다.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다. 그간의 활동을 회고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정말 우리가 주도해서 배분 사업을 다 하게 될지 몰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자발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권한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위원들 대부분 “배분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왔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자신들도 믿지 못했다.

“지원 서류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어요. 서류는 간사님들이 만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어떤 사회 이슈에 배분할지 기획부터 홍보, 심사, 선정까지 다 저희가 주도해서 했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맡은 만큼, 말한 만큼 책임감이 생겼으니까요.”

시작부터 “배분을 한다”는 목표 외에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위원들은 매주 모여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누구 하나 싫은 표정이 아니다. 한 위원은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해본 일은 처음이라며, 재능을 찾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던 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 스스로도 몰랐다. 청소년인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는 사실과 어른들의 개입이 없을수록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몰입해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느낌이에요. 학교나 학원에 다닐 때는 시켜서 하는 일이라 기운이 빠졌는데, 이 일은 즐거워요. 엄마도 공부할 때보다 훨씬 열심히 한다고 하셨어요. (웃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깐 그렇겠죠."

토요일은 배분위원회 가는 날, 일상의 풍경이 바뀌었다

일상이 바뀌었다. 위원들은 "나 토요일에는 청소년 배분위원회 가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때마다 질문을 받았다. '배분위원회'란 낯선 단어 때문이었다. 설명은 늘 어려웠다. "모금한 돈을 배분하기 위해서 공모를 올려서..."라고 설명하면 "공모가 뭔데?" 하는 질문이 뒤따랐다. 일상에 들어선 '청소년 배분위원회'란 낯선 활동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줬다. 대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토요일에 친구들이 놀자 그러잖아요. 그럼 '나 배분위원회 가야 해' 그래요. 그럼 일단 '배분'이 뭔지 다들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돈 나눠주는 거야'라고도 하고.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됐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봉사 시간 받으려고 하는 거야?"였다. 하지만 위원들은 그 이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시작부터 그 이상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왔다.

"전 열한 살 때부터 막연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몰랐죠. 반디 활동을 하고 나서야 이런 사회 참여가 내가 원하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배분위원회도 참여했어요."

처음 해보니 일이니 모든 일이 마음 같지는 않았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심사'다. 공들여 작성된 지원서를 보고 나니, 누군가에게는 불합격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무겁게 다가왔다. 그래서 미리 만든 심사 기준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지금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였다.

"선정 단체 중에 '대학생성소수자연대'가 있어요.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해도 말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 소수자와 성인 성 소수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이전부터 성 소수자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지원서를 보고는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구나 생각했어요."

선정 단체를 설명하는 위원들의 목소리는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듯 열의가 가득 차 있었다. 심사와 선정이라는 큰 고개를 넘어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선정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회고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어떤 제약도 없이 이상적인 청소년 배분위원회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답은 단순 명쾌했다.

"저희가 한 것도 충분히 이상적이지 않나요? 세상이 알았겠어요? 청소년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이죠!"

글_우민정 / 사진_김권일



김수미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로 약 1년간 활동하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얻은 건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나의 일상까지 바꿔 놓았던 것들은 사람을 마주하는 방법과 내가 청소년이라는 점이 스스로 자랑스러워졌다는 점이다.

직접 배분 활동들을 하면서 적다면 적은 많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는 그들을 만날 때 고등학생 김수미가 아닌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김수미"였다.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들의 시선에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배분위원회라는 모습에 맞춰 나를 만들어갔다. 덕분에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 활동을 시작하고부터 먼저 말을 건네며 이어가는 모습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큰 키 때문인지 늘 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먼저 직접 내 나이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웃곤 했었는데 나의 패를 먼저 밝히게 되면 그들은 늘 나를 자신들 보다 "어린 학생"으로 대하거나 심지어 가끔은 나의 옷차림이나 화장 같은 것들이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는 조금 더 고등학생의 모습을 사랑하고 당당해졌다.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학생이라는 걸 먼저 밝히며 소개하고, 나를 독특한 학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학생들에게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으니 나를 존중해달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 배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들의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사실 정말 막막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말들이 막상 실현되니 정말로 모든 걸 우리가 해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고 모든 게 마냥 어려운 것만 같았다.

내가 해낼 수 있을지를 나 자신도 몰랐던 일들은 사실상 간사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1기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 청소년배분위원회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다시 한번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 “간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났던 날들 보다 한 뼘 아니 그 이상 성장했고, 첫 배분의 마무리에 서 있다. 첫 청소년배분위원회로 모든 걸 새롭게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어려웠지만 청소년이 직접 배분을 해보고 누군가를 지원하면 그들을 응원한다는 점은 정말 짜릿하게 매력 있고 멋진 일이다.

처음 배분위원회라는 단어는 나에게 “어른들의 단어”로 입력되었고 무언의 장벽이 존재하는 무거운 자리 같았다면 지금은 배분위원회는 “우리들”이고 나는 자랑스러운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김수미이다.

김의석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처음 배분위원이나 배분 등이 뭔지 몰랐다. 재단에 후원하고 계신 아빠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나에게 "청소년들끼리 하는 활동이 있는데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배분이 기부금을 단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게다가 기부금이 천만원이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돈을 기부할지를 정하고 토론하고, 내용은 재미있을 것 같았다.

면접심사에서 15명 중 한명으로 겨우 통과했다. 면접을 보러 왔을 때는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탈락하자'고 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하였다. 통과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은 빠지면 안되서 참여연대까지 뛰다시피 갔다. 내가 이렇게 사회문제에 열정적인 건 처음이었다.

그 전에 면접을 볼 때 다 초면이어서 다들 나를 친구처럼 봐줘서 난 되게 재미있었다. 그런데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다보니까 나만 중1인것 같았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제일 어려서 내 의견이 형누나들의 의견에 비해서 비교적 약할 것 같았다. 면접 때 딱히 지금까지 기억나는 질문은 없다. 여자분 두 분과 남자분 한분이 계셨고 자신들을 소개하셨다. 기억나는 질문은 이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봤냐는 거였다.

난 학교에서 1년 동안 친구 열명과 함께 바자회와 성당이나 동네 행사마다, 따라



다니며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도록 기부 캠페인을 했다. 삼십만원과 종이학 천 오백개를 얻어서 세월호 인양 위원회에 갖다드렸다. 이 이야기를 면접 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은 있는 면접이 되었다.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페미니즘이나 세월호나 위안부 정도밖에 사회이슈에 대해서 몰랐는데, 배분을 하기 위해 지원한 팀들의 활동 내용을 보다보니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사실 형누나들이나 선생님들은 내가 나이 때에 비해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난 한참 부족하다. 청소년 헌법 개정, 특히 지원금을 요청하시는 청소년 분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 처음 신청할 때도 전혀 상상 못한 엄청난 사회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른들의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더불어서 나의 머릿속으로 이해되려니까 점점 활동이 힘들어졌다. 그래도 형들과 누나들이 잘 도와주고 아빠도 영상 작업 바쁜 시간 땡겨서 도와주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았지만 벌써 심사도 끝내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많은 시간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 나는 내가 어려서 선배들의 진도를 못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거의 안 빠지고 모임을 거의 매번 나갔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 교통문제로도 아주 불편했었다. 게다가 난 전화기가 없어서 장소 바뀐 것도 모르고 재단으로 찾아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은 나에게는 매우 현실성을 갖게 해주고 예상한대로 사회문제를 더욱더 잘 알게 해주었다.

일년 동안 수고하신 간사님들, 누나들, 준원이형, 한결이형 너무 고맙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다. 이 기회에 나의 영상작업 기술도 더 열심히 해보자.

지금까지 ui seok kim 이였습니다!

김채림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처음에 배분위원회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평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였다. 2년 동안 반디활동을 하면서 인권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1기 배분위원이 되고 나니 걱정이 앞섰다. '내가 과연 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잘 배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실제로 사업을 구성하고 배분을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뜻깊고 보람찬 활동이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먼저 배분을 하기 전 준비과정으로 배분을 하는 단체와 배분받은 단체들을 방문하고 관심 있는 주제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배분위원들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팀'과 '청소년이 하는 팀'으로 나누었다. 나는 그 중 '청소년을 위한 팀'이 되었다. 평소에 학생인권에 관심이 많던 터라 사업을 계획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다. 워크숍에 가서 '학생인권'과 '미혼부'와 같은 인권소수자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공모 준비를 마쳤다.

내가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것은 워크숍이다. 대구에 있는 청자발팀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 또래 청소년팀과 신청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밤이 될 때까지 배분을 위한 공모 준비를 하고 다음 날 이월드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남는다. 사업들을 받고 단체들을 1차 서류심사, 2차면접을 위해 배분기준방향, 심사기준을 정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지원해준 많은 단체들 중에서 두 개의 단체만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팀원전체가 가장 고생한 과정이었다. 많은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써준 흔적들이 서류에 보여서 더욱 신중히 고민했다. 면접을 할 때는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고, 면접 들어가기 전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두 개의 단체에게 배분을 결정했다. 배분받은 단체들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 점검도 했다.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모임, 결과발표회가 남았다.

1년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하는 날로써 기대가 된다. 1년동안 해왔던 배분위원회활동이 그날로써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다들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쉽다. 배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팀원들과 서로 협동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팀에서 막내인데도 의견을 잘 들어주고 편하게 대해준 점이 너무 고맙다. 아쉬웠던 점은 두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다른 팀원들과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활동 중간에 빠지는 위원들이 많아 아쉬웠다. 배분위원회 활동으로 내가 한층 더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인권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팀원들과의 협동들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하다.



김채영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과거의 반디 활동을 했던 아름다운재단에서 한통에 메시지가 날아왔다. 바로 '청소년 배분위원회' 모집 공고였다. 나는 처음 들어본 이 생소한 단어에 얼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청소년이 재단에서 1000만원을 받고, 그것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나 팀에 지원을 하는 활동이었다. 나는 그렇게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시작했다.

청소년배분위원회에서는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학습하고, 배분을 위한 사업 주제도 결정했다. 그 다음 우리가 정한 사업 2개에 따라 팀을 나누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배분을 할 팀들을 정했다. 이 배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는 많은 방면에서 성장했고, 인생 처음으로 해봤던 많은 활동들도 겪어 봤다.

청소년배분위원회를 하면서 청소년 분야로 사업을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좋았다. 평소에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업 주제를 정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또한, 직접 정한 사업 주제에 맞게 직접 심사를 해보니, 면접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입장이 되어 봐서 신기했다. 심사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심사기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내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더 잘 잡혔다.

일단, 형식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은 면접에서는 필요한 대답을 잘 하고, 자발성을 보여주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많은 점들을 선생님, 언니 오빠들, 동생 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선배들과 관계를 하는 법도 배우고 말이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정말 나에게 유익했고, 앞으로 삶을 살면서 자주 생각 날 것 같다. 여기서 만나게 된 언니, 오빠, 동생도 너무 좋았다. 지금처럼 많은 부당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청소년 시기에 모두가 청소년의 고충, 문제에 공감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지나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이 활동으로 나의 사회적 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거나 2기에서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은 부서를 나누어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역할들 (예를 보면 서기, 진행자, 사진 담당자, 섭외 담당자 등)을 나누어서 활동이나 회의를 진행한다면 훨씬 진행할 때 수월할 것이고, 매 회의 때마다 담당을 정해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수연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가장 후회 없는 선택, 청소년배분위원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좇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늘 나 혼자서 하는 선택, 결정을 어려워했다. 그런 내가, 너무나도 쉽고 결단력 있게 결정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름다운 재단 청소년 배분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었다.

처음 배분위원회에 신청할 때에는 배분위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재단의 반디 프로그램을 2번이나 수료한 뒤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 처음 신청할 때 봉사시간을 준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사실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받게 될 봉사시간에도 관심이 있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오리엔테이션까지도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나 첫 모임 이후, 배분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나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책임감이 무거운 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기부자 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배분금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탈락’을 시켜야 한다는 것들이 내가 해본 일들 중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분위원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 일을 꼭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배분을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모든 것을 청소년 배분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했다. '배분을 해야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틀부터 우리 스스로 잡아가야 했다. 처음엔 하고 싶다는 욕심과 더불어 진짜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생겼다. 물론 주제를 정하고, 조를 나누고, 전문 배분 위원들과 배분 받은 단체를 찾아가 조언을 듣고, 공모를 올리고, 서류를 직접 만들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우리 팀원 모두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공모 공지와 심사 준비를 하던 겨울 방학 때였다. 당시 우리는 매주 4시간 씩 모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서류 작업은 처음이었기에, 우리의 심사 기준에 맞춰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간 지원 서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짧은 모집 기간 탓에 지원 단체가 적을 것 같아 홍보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처음 하는 어려운 일들 투성이었기에 매주 모임을 가져도 각자 집에서 홍보, 서류 작업에 시간을 할애했다. 주변 사람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 마지막 방학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기는 게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시간을 빼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썼다는 생각이 든다.

1년간의 배분위원회 활동은 세상에게,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 거의 모든 것을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낸 청소년 배분

위원회 활동은 세상에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폐쇄적인 입시 체제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게 이렇듯 책임감을 요구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 역시도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 배분위원회 1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었다. 청소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1년간의 배분위원회 활동은 나에게 아드레날린 주사 같았다! 나는 최근 들어 고등학교 입시 준비, 그리고 입학한 후 고등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며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이 한껏 낮아져 있었다. 하지만 배분위원회 활동을 할 때만큼은 에너지가 가득했고,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자신감과 자존감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나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고, '뭐든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얻게 되었다.

청소년 배분위원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 16년 중에서 가장 잘 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활동이었다. 또, 내가 여태 한 활동 중 가자 나다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고, 열정을 갖고 모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다운 게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열정을 갖고 집중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고 궁금근 친구들에게 배분위원회를 진심으로 추천해 주고 싶다.

박진주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시작은 단순한 끌림 이었다. 나는 이제 까지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다룰 기회를 주는 곳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성인에 비해 부족할거라는 생각으로 제공되지 않는 기회들, 그에 따른 무시들. 제약도, 편견도 많은 청소년인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신청을 했고, 그렇게 난 1기 청소년배분위원이 되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11월 말이나 되서야 기대했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9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배분을 진행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거의 세 달이 지나다보니 기운이 빠지는 느낌까지 들었다. 11월 25일,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하나의 배분위원회를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 시작했던 그 날을 나는 이제까지의 배분위원회 활동의 전환점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제대로 시작한 것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고려하며 신청 서류 양식을 짜고, 우리가 정한 주제에 맞는 심사 기준을 세우며 두, 세 달 정도를 바쁘게 보냈다. 서류 심사는 총 15개 팀이 지원을 해서 다 같이 진행했는데, 우리가 정한 주제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통과를 시켰다. 서류 심사 때 까다롭게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류 심사 직전에 만났던 재단 관계자 분께서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으니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3월 중순에는 면접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끼리는 면접이라고 했지만 지원자들에게는 '인터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원자들이 '면접'이라는 말 자체에서 혹여나 부담감을 느낄까 봐서였다. (지원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노력한 점들이 이제와 보니 꽤 되는 것 같다.)

면접 때는 '빨리 하고 끝내자!'라는 생각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했는데 약 네 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심사를 진행하다보니 후반부에는 심사 진행자들 모두 정신이 없었고 같이 했던 수미 언니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계속 미소를 짓다 보니 입가에 경련이 날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가장 힘들어서 그랬는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마냥 힘들었다기 보다 꽤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 이었던 것 같다.

작년 8월, 더웠던 한여름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배분위원회 면접을 보던 나는 가을, 겨울, 봄 그 리고 작년보다 더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결과 발표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 뭔가 월말이 되어 한해를 정리하는 기분이다. 처음에 더디게 시작해 내가 붓고자 했던 열정을 반 밖에 못 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측에 속함 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 비해 청년 정치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내 주변 친구들도 우리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요즘 시사 문제에 대해 물어봐도 그게 뭐냐는 대답을 하기 일쑤다. 나는 청소년이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회의 어두운 면에 물들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청소년이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며 즐거웠다.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지원한 친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솔직히 조금 슬플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 한 사람이라도 알아준다면,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을 변화의 시작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준원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작년 8월 아름다운재단에서 연락을 받고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몇 년 전 참여했던 반디활동과 비슷한 활동인줄만 알았다. 첫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였다.

그 후 고함20, 아름다운가게 등등을 많이 방문했지만 내가 정확히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청소년배분위원회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던 때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회의를 했던 때인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청소년이 하는 팀', '청소년을 위한 팀' 두 개로 나뉘어져 구체적으로 청소년배분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회문제와 배분 기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 활동 이후 점차 청소년배분위원이란 활동에 대해 호기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청소년배분위원 친구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게 된 시기는 대구에 워크숍을 갔던 때인 것 같다. 그 이후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오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시작하고 내가 위원회의 일원임을 확실히 느꼈던 활동은 바로 배분심사활동이었다. 그날 나는 비록 심사장 밖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신 지원팀 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긴장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맡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



심사에 참여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 말고도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고 한편으론 내가 너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다. 청소년 배분위원회를 시작한 후 깨달은 점이 있다면 '청소년의 힘이 꽤 크고 많은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 였다. 앞으로 청소년이 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어야겠다.

서현희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처음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웃기다. 바로 이름이 신기해서 활동에 관심이 간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처음 청소년배분위원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 배분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눈다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그리고 그 홍보물에 써져 있는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청소년 배분 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신청을 준비 하면서도 많은 고민들이 나를 붙잡았다. 과연 내가 책임감 있게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말이다. 하지만 이 고민들을 하면서도 나는 이번 기회로 나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도 들기에 망설여졌지만,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결과 발표의 날이 다가오고, 다행히 나에겐 합격이란 소식이 들려왔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첫모임, 두 번째 모임,, 모임이 지속될수록 나에겐 또다시 많은 고민들이 밀려왔다. 우리가 처음이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했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한 배분보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손을 거쳐 가야 하는 과정들이 많았다. 그리고 배분준비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차근 차근 계단을 쌓아간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평지처럼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이 나에게 득이 되는 활동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설명하기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정말 나에게 첫 배분은 어려운 일이었다.



뒤돌아보니 평지인 그런 생각에 배분위원을 그만 뒤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본격적인 배분준비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모아온 자료와 생각해온 가치를 토대로 시작 되었다. 그때를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많이들 정도로 할 일도 많았다. 만나서 회의를 하고도 집에 가서 공모를 위한 서류, 면접 질문 양식 등을 만들어야 했고, 회의 장소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 때는 카톡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힘들었던 기억만큼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평지 같았던 활동이 굴곡이 나타나고 계단이 되어 가는게 잘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마 이때 가장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배분 위원이라는 자심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공모를 시작하고, 면접심사를 시작하고, 면접을 보고, 우리들이 원하는 가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팀을 뽑고, 그 팀들이 하는 활동들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난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 나는 청소년배분위원활동을 하기 전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였다.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꾸준히 나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했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들이 많았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힘들 때는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잘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선생님들과, 항상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팀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었다. 물론 아직도 실수를 하고 있지만,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나는 느낀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내 나이 때에는 서류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꽤 많은 서류들을 접하고, 그 서류를 토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전보다 글쓰기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청소년배분위원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이렇게 결과 발표회까지 준비하며 이 활동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천천히 써 나가니, 쓰면서도 아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들과, 이제 곧 이 활동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나에게 오면서 평소엔 느껴 본적 없는 낯선 기분들이 참 오묘하면서도 좋다.

이 활동이 끝나고, 다음 2기 청소년 배분위원회가 생긴다면 그 배분위원들에게 이 감정을 알려주고 싶다.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과 많은 추억들 또한 많았다 라는 것을.

오예나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2017년 8월 아름다운 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OT. 처음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소개를 하며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을 시작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라는 말만 들었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 그래서 앞에 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을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컸다. 그런데 어느새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을 한지 1년이 다 되었다. 우리의 페이스북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 활동을 해 온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시 몇 가지 키워드로 나의 배분위원 활동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고함20

배분위원이 무엇인지,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고함20을 방문하면서 번개처럼 무언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첫번째는 고함20에서 청년담당자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 들은 것이다. 돈도 별로 받지 못하는 그 단체에서 굳이 힘들게 자신의 생활까지도 포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고함20 청년들은 함께 모여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목소리로 알리기 위해 열중하고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만이 고함20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



시고, 지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배분위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순간 나도 아무에게 지원 받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그런 일에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평소 여성 혐오,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다. 내가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깨닫게 되었고, 우리 배분위가 여성, 여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 팀

이슈가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심사를 준비를 하고 직접 심사까지 한 일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웠다. 어려웠던 만큼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순간이 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 팀인 우리팀에서는 지원해야 하는 이슈를 정하는 일부터 쉽지가 않았다. 고함20에서부터 다루고 싶은 페미니즘, 교내 여성 혐오, 여학생의 인권 이슈도 한 부분 선택되어 다행이었다.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일, 홍보물 문구를 정하는 일, 홍보를 직접 하는 일 우리팀은 모두 바빴지만 겨울 방학을 이용해 틈나는 대로 열심히 모였다.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두번째는 면접 심사위원이 되어 어른들을 상대로 면접을 한 것이다. 학교 동아리에서 면접 심사위원으로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친구들을

심사해 본 적은 있었지만, 어른을 심사하다니...심사하기 전까지 무척 떨렸다. 그런데 막상 어른들이 우리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면접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면접관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후에 우리팀은 모여서 하나하나 진지하게 각 단체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내용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서로 다르게 느끼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른 의견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오랜 시간 토론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I CAN SPEAK

특성화고등학교 연합단체가 선정되어 그동안 다루고 싶은 이슈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 사업계획서를 볼 때부터 올해 초부터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에 꼭 선정되길 바랐다. 특성화고등학교 또래의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직업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행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문제였다. 더 많은 친구들이 용기 있게 "I CAN SPEAK"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알리면 좋겠다. 청소년배분위원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이 활동이 점점 더 커져 특성화고 친구들이 더 이상 이런 부당함을 당하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다.

배분이 무엇인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어디에 초점을 두지 못했던 나는 이렇게 단체들도 방문하고, 우리팀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논의하고 작업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분위원이 되었다. (특히 우리팀 친구들 한명 한명이 고맙다. 다들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모든 과정과 의사 결정이 조금은 편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회 문제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사회를 바꾸기 위한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활동이 끝나도 배분위원의 마음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 사회 이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1기 청소년배분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온 내가 자랑스럽고, 다른 청소년들이 또 배분위 활동을 하면서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현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7월 말이었다. 나는 그때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생소한 곳에 청소년 배분위원회라는 더욱더 생소한 활동에 신청했다. 그리고 재단에서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알리는 메일이 왔다. 그곳에는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글을 쓰며 나는 그 메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그 프로그램의 진행 비용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하며, 활동내용과 배분공모와 심사방법 등 모든 것을 청소년 배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려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글을 처음 읽을 땐 설렘이 가득했는데 지금 읽으니 '아...정말로 우리가 저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 일 년간의 나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8월 7일, 나에게 합격 문자가 왔다. 그땐 마냥 기뻐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설레었다. 이틀이 지난 뒤, 청소년 배분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어색했고, 숙스러웠고, 새로웠다. 같이 신청했던 친구가 없는 나에게 면접을 하면서 먼저 안면을 튼 이들과는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반가웠다. 오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른 이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날 모든 활동이 너무 즐겁고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 개학 탕



에 이틀간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다.

9월 9일, 머릿속에서 잊혀 있었던 첫 모임. 그날은 아름다운 재단 배분위원장님을 만났다. 근 한 달만의 만남이라 구성원들이 서로 어색해하며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질문을 못 했고 그렇게 미리 작성했던 질문들에 대한 배분위원장님의 답을 얻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진짜 청소년 배분위원회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0월 28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하였다. 아름다운가게는 돈이 순환하는 구조로 기부 받은 물품을 팔아내어 얻은 이익을 그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배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처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11월 11일,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을 포함 20이란 단체이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했던 곳이었기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그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편할지 그리고 배분을 받은 후 기전 재단의 방식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들으며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하며 배분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다.

11월 25일 역사적인 순간, 하나의 배분위가 각자 관심이 있고 참여 해보고 싶은 이슈에 따라 두 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지금의 팀이 만들어졌고 배

분이 이루어졌다. 만약 이날, 이 활동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배분한 활동 덕분에 생긴 사회의 움직임은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되더라도 배분은 이루어졌고 활동은 이루어졌겠지만, 지금의 변화는 이날로 부터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그이후로 각 팀으로 나뉘어 모임을 했고 그 팀에서 팀원들끼리 서로 조사해 왔던 배분하고 싶은 활동을 발표하며 각 팀만의 진로를 정하고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고 1 겨울방학은, 짧은 인생이지만 학교를 다닌 10년 동안의 방학 중 가장 알차고 의미 있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1주일에 한 번 수요일 2시, 일주일마다 나는 서울행 KTX에 올랐고 재단으로 향했다. 본격적으로 배분서류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날은 회의가 끝나고 서울 구경이나 좀 하고 올까 해서 대구로 돌아오는 차편 시간도 넉넉하게 잡았다. 그런데 웬걸.... 그날 결국은 재단 직원분들과 같이 퇴근할 뻔했다. 그 이유는 서류 때문이었다. 처음 너무나도 안일하게 그냥 재단에서 사용하던 서류를 그대로 베껴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아 그날만 몇 번을 엮었다. 그래도 여차여차 서류는 완성되었다.

나는 그것으로 서류에 대한 문제가 끝이 난 줄 알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모임에서 또 한 번 엮어졌다. 우리가 만든 서류의 각 문항을 설정한 데 있어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또 그 다음주 모임에서 또 엮어졌다. 몇 가지 문항들은 필요가 없었고 또 몇 가지 문항들을 우리도 대답하기 힘들었으며 또 어떤 문항은 다른 문항과 겹친다는 이

유에서였다.

우리는 크게 보면 3번 서류를 였었다. 였었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수정했다는 단어가 우리의 노력에 비해 시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엔 신나게 논다는 생각으로 간 대구 워크숍. 1박 2일 일정 중 하루는 정말 온종일 일만 했다. 정말 일만 했다. 그날은 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청소년 단체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 팀이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각 팀의 서류도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을 해 주었고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서류가 탄생하였다. 그렇게 가쁜 마음으로 둘째 날은 이월드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다.

이렇게 우리의 배분 공모는 시작하였다.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했던 모든 일을 해내었다. 팀원들과의 관계 또한 이번 배분공모를 준비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 처음엔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없는 대화를 나누며 정말로 친해지고 돈독해 졌다.

공모가 시작되고 서류가 들어온 후 우리는 그 서류들을 보고 1차적으로 면접을 볼 사람들을 걸러 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성장을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내가 원하고 옳다고 또는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게 말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이다. 10년간 학교를 다녀오면서 정해진 답을 외우고 발표하고 시험을 쳤던 나는 '이게 과연 옳은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답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경험

하고 서류들을 검토하며 수많은 의문을 던졌고 남들은 괜찮은 활동이라 생각했으나 나에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많았던 서류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많이 성장 했구나 느꼈다.

3월 24일의 면접을 통해 두 단체가 선정되었다. QUV와 특성화고 연합. 이 두 팀은 우리 배분위 취지와 걸맞게 뽑혔다. '청소년의 청자가 푸를 청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우리의 취지와 이보다 더 걸맞을 수가 있을까? 다수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유에서 사회의 불편한 점들과 남들보다 더 일찍이 대면해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가 더 푸르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7월 28일 QUV가 우리의 배분을 받아 개최된 행사에 참여했다. 그 행사는 청소년 성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았던 것들을 그들을 위한 성교육, HIV바이러스 교육, 사람책을 통하여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활동으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사 소개를 할 때 이 행사는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행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자부심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청소년 배분위원회의 이미 현이라며 자기소개를 할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 행사를 청소년 성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평소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

었다. 그날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탓에 그들이 받았던 상처는 내 생각보다 좀 더 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밝은 그들을 보며 알지 못할 감정을 느꼈다.

이 활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이 활동이 나에게 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보이는 하늘이 다라고 생각했던 나에를 바깥으로 고집어내 내가 보았던 하늘이 다가 아니라고 알려 준 것이다. 활동이 시작하기 전, 나름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진짜 문제는 내 눈앞이 아니라 등 뒤에 숨어져 있었구나 라는 걸 느낀다.

정은미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고1 여름, 나는 반디를 추천해주신 분에게서 또 다른 제안을 받았다. 바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이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기부금을 배분을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색다른 일이어서 기대되고 관심이 갔다.

나는 청소년배분위원회가 되고 나서 첫 모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언니, 친구, 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 떨림, 즐거움, 설렘 등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감정들이 공유되듯이 기대되고 설레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었던 첫날, 그렇게 나는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이 시작된 후 나는 많은 분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품었지만 배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배분의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면접 준비, 오티 등 앞선 경험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청소년배분위원들과 지난 1년 함께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또래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멋있어 보였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 같다.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질문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되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되새겨 보며 준비했다.



또 신청자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힘들지는 않을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준비하느라 힘들기도 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간에 아예 두 팀으로 나눠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청소년배분위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진 거 같았다. 실제로도 두 팀 사이에서 전처럼의 소통이 이어지지 않았고 어쩌다 한번 씩 보게 되면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또, 활동을 하면서 처음 뽑혔던 인원보다는 더 적은 인원로 활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자신이 활동하는 비중이 커져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져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이 적은만큼 친해지기도 더 쉬워 단합이 잘될 거 같다.

이러한 점들이 2기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7살에서 18살로 넘어가며 나는 내 스스로가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낀다. 청소년 배분위원회 1기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정한결 청소년배분위원 스토리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1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도 청소년배분위원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도 변한 것들이 많고 다른 위원친구들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처음 청소년배분위원회에 관한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갔을 때만 생각해도 배분이 뭔지, 위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 이었습니다. 처음 청소년배분위원들을 만나고, 재단의 배분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도 이 활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인 사전조사와 교육, 미팅을 해감으로써 청소년배분위원회로서의 나의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봄 극심한 미세먼지와 함께 본격적인 배분위원회의 활동을 했고, 그 중 하나가 힘들었던 배분신청양식을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배분위원으로써 심사나 평가를 할 때 생각할 가치와 같은 주요한 항목부터 예산안, 단체명, 향후 계획 같은 신청서의 기본항목까지 배분위의 본래 목적을 직접 손으로 더듬어 상기시킬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그 전까지 결코 알지 못했고 어렵פות이 떠올리기만 했었던 사회에서 실무적인 서류들을 만들고, 다루는 작업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양식의 제정이 끝나고, 재단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를 올렸을 때가 설날이었습니다. 디자인부서에서 작업에 힘써주신 덕분에 좋은 디자인이 나왔고 팀별로 원하는 방향의 사업으로 공고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모집이 끝나고 우려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분위원회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팀원들과 모여 많은 시간 신청서들을 붙잡고 토의를 했고, 계속해서 평가기준과 비교하며 신청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분위원회 초기에 줄곧 나오던 어색한 분위기나 서먹서먹한 관계는 찾아볼 수 없기 되었고, 소통이 원만하게 되어 작업의 진전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신청서의 단체들에게 연락을 드릴 때 제가 직접 단체들에 전화를 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정이 끝나고 연락받은 단체들을 직접 만나 면접심사를 하는 날에는 안내와 관리를 맡았는데, 처음해보는 일에대한 미숙함과 긴장감이 겹쳐져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피곤함으로 인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모두 지나고, 어느덧 배분위원회가 결과발표회를 준비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무적인 과정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구로 1박2일 워크숍도 다녀오는 등,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1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청소년배분위원회 이야기를 쓰자니 기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청소년배분위원회로서 보낸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영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겁니다. 좋은 사업을 함께 진행한 좋은 친구들을 얻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귀감이 될 만한 활동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만약 후배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생긴다면, 이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